

악어새를 두려워하는 악어?

공생관계인 '악어와 악어새...' 악어 이빨속으로 악어새는 들어갑니다.

악어는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생태계가 변한 탓일까요? 악어새를 두려워하는 악어가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악어새를 멀리하면 악어 역시 병들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김상우 / YTN 경제부 차장

누 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음증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세계를 몰래 엿보는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안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도 많지만 그 순간을 포착해 상대방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따뜻하거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얻어 상대방의 삶을 엿보면 더욱 즐겁겠지요. 하지만 직업상 이런 사람을 만나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전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 번도 접촉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나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만나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것으로도 성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직업상 그를 만나 이른바 안면을 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만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저로서는 '안면장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평소와 다른 '오버액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즐담배를 필 때도 있고 술을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관음기를 써야되기 때문이지요.

기사는 어떤 면에서 관음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몰래 엿보는 것이 아니라 '잘 써주세요' 하며 마치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엿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짜릿함도 있지만, 자칫 어떤 각도에서 상대방을 엿보고 있는지 어떤 각도에서 관음기를 쓸 것이라는 것을 들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음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긴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긴장이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고, 매일 '관음 대상'을 사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팽팽한 긴장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면에서는 태생적으로 긴장 속에 살고 그렇게 살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도 모릅니다.

'태생적으로 긴장을 먹고 그렇게 사는 동물'이 저는 악어새라고 생각됩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악어의 입 속에 들어가 뿔가를 쪼고 있는 새 한 마리,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새라고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간덩어리가 부은 새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악어의 입 속에서 천연덕스럽게 먹이를 쪼고 있는 악어새는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악어 이빨 속에 끼인 고기나 찌꺼기를 먹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새. 그리고 악어는 이 악어새를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일종의 '치과주치의'인 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생관계의 대표적 동물들이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수 천년간 이어져 온 이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갑자기 다른 시각으로 예를 들어 기생관계로 보는 시각이 갑자기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기생충이 악어를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한 반도의 생태계가 갑자기 변한 탓인지 악어새를 두려워하는 악어가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이런 다른 시각의 근거에는 악어새가 악어를 잡아먹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악어새가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역세졌다 해도 악어가 악어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악어새가 악어에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어에게 치명적일까요? 그래서 악어새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동물을 찾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어새 때문에 뭔가 좀 귀찮다고 악어새를 멀리하면 악어 역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악어는 악어새를 존중할수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자연의 법칙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PPFK**

